

한 아기

이사야 9:6-7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아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 자기가 지은 피조세계에 사람으로, 그것도 갓난 아이로 오신 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의 우리의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다양성의 아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사9:6) 한 아기는 비록 아기지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놀라운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다양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한 방향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의사가 되라고 합니다. 무조건 판사가 되라고 합니다. 무조건 음악가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태어날 때부터 그 방향으로만 몰아갑니다. 한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단조롭게 아이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삶이 있는데 그 인생을 획일적으로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한 아이에게 심으신 하나님의 다양성을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그것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2. 희망의 아기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본문의 앞 절들을 보면 그 흑암의 시대에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사 9:2-5) 그런데 한 아기가 등장하는 것이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사 9:7a)

작은 한 아이라고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작은 것 하나를 무시하고 소망이 없다는 등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 큰 희망을 보라고 가르치십니다.(막 8:14-21)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작은 한 아이 속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아기가 세상에 엄청난 축복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3. 의존의 아기

어느 아기도 자기 힘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의존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헤롯의 칼이었습시다.(마 2:13) 아기 예수님 혼자서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주의 사자가 피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하신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외침도 이것이었습니다. (눅 23:46)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도 헤롯과 바로처럼 우리 아이들을 헤치려고 온갖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모습으로 칼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자녀에게 있어야 하지만 부모의 노력만으로 이들을 바로와 헤롯에게서 지켜내고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아이들을 맡겨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며 마침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어른, 어떤 부모입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 어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막 10:13-1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끌지를 결단하십시오. 한 아기 예수님은 다양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다양성으로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작은 아이에게 희망의 큰 미래가 있다고 믿고 말하십시오. 이 어려운 세상에 아이들을 하나님의 열심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자녀들의 생애를 완성할 것입니다.

○ 나눔의 시간 ○

1. 예수님의 다양한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 작은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3. 오늘날 아이들을 헤치려 하는 헤롯과 바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살려낼 수 있습니까?
4. 무엇이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완성합니까?(사 9:7하)